



어미돼지 체형 및 번식성적은 시설별 (반스틀, 자유출입스틀, 자동급이군사시스템) 차이 없음

모든 체형	◦ 조사항목 : 모든 체중, 등지방두께
	◦ 측정시기 : 임신 50 · 107일령, 이유 시
번식 성적	◦ 조사항목 : 자돈성적(산자수, 체중), 임신기간, 자돈출생간격, 재귀발정일
	◦ 측정시기 : 분만 시, 이유 시

군사사육 시설 선택 시 중요사항

◦ 농장의 임신돈 관리형태를 확인하세요!

- 농장의 n주간 관리 · 사육형태(Dynamic, static)에 따라 임신돈 사육 돈방의 개수가 결정됩니다.

◦ 농장의 시설 변경 가능한 면적을 확인하세요!

* **Dynamic** : 임신기간동안 일정한 간격(n주간)으로 충분한 모돈을 합류시키고, 분만예정 모돈은 제외시킴

* **Static** : 모돈을 종부시킨 후 분만사 이동 전까지 다른 모돈의 합류 없이 돈군을 유지(3~4주간관리에 적합)

추천 사육형태



어미돼지 군사(群飼)사육을 왜 해야 하나요?



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축산법 시행규칙에 신규로 양돈 가축 사육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“**교배한 날부터 6주가 경과한 임신돈은 개별적으로 가두어 사육하는 틀(스틀)에서 사육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임신돈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군사 공간에서 사육하여야 한다.**”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(축산법 시행규칙 : 제 30조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).

기존 농가는 10년동안 유예기간을 갖고, 2030년 부터 적용이 됩니다.



우리치어 키우는

“



어미돼지
군사 사육시설

Group housing





반스톨

Short Stalls, SS



소개

- 기존 고정틀(스톨) 뒷부분을 일부 제거하여 돼지가 출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 스톨

장점

- 다른시설에 비해 어미돼지 군사사육으로의 전환이 간단하며, 관리가 용이함
- 모든 모돈이 동시에 사료섭취 가능
- 별도의 시설적응 훈련 필요 없음

단점

- 모돈의 개체관리가 어려움
- 사료급이 시 사료를 다 먹은 모돈이 다른 모돈을 공격할 수 있음

비교

- 선택사항 : Trickle Feeding, 스톨의 길이
 - Trickle Feeding : 지정된 시간 동안 일정한 양의 사료를 내려주어 동시에 섭취가 끝나도록 하는 급이시스템
 - 스톨의 길이



어깨길이 허리길이 엉덩이길이



자유출입스톨

Free Access Stalls, FAS



소개

- 돼지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스톨형 군사시설
 - 어미돼지가 들어가면 출입문이 닫히고, 뒤로 걸어 나오면 열림

장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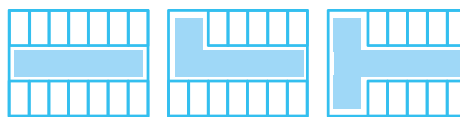
- 임신돈의 의지에 따라 개별 스톨 및 휴식공간 이동 가능
- 모든 모돈이 동시에 사료섭취 가능
- 수동으로 스톨 잠금이 가능하여 이상개체의 치료 및 관찰 가능

단점

- 입식 전 시설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 필요
- 모돈 1마리당 자유출입스톨 1대
 - ☞ 동일면적 시 다른 군사사육 대비 휴식 공간 좁음

비교

- 선택사항 : 휴식공간



I형

L형

T형



자동급이군사시스템

Electronic Sows Feeder, ESF



소개

- 전자식 자동 사료급이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개체관리가 가능한 군사시설

장점

- 시스템 1대당 모돈 20~40마리 수용 가능
 - ☞ 다른 군사시설 대비 휴식공간 넓음
- 무선인식을 활용한 개체별 사료급이량 설정 가능
 - ☞ 개체 관리 용이
- 사료 급이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상이 있는 개체 조기에 조치 가능

단점

- 입식 전 시설적응 훈련 및 관리자 교육 필요
- 백신, 치료 등 작업 시 모돈 보정이 어려움

비교

- 선택사항 : 칸막이 설치, 자유출입스톨

- 휴식공간을 위한 칸막이 설치



- 자유출입스톨
 - + 전자식 자동 사료급이장치 (1대당 약 10마리 수용)

